

# 白凡金九의 政治思想에 관한 小考

-民族主義論과 民主主義論을 中心으로-

정 경 환\*

## A Study on Political Thought of Paek-Peom Kim Ku

- Centering Around on Essay on Democracy and Nationalism -

Kyeong-Hwan, Ceong\*

### 〈 目 次 〉

제1장 序論	제4장 自由와 平等 理念의 設定
제2장 民族主義의 概念化와 本質	제1절 自由精神과 人間平等
제1절 民族과 階級の 差別性	제2절 法的 規制下의 自由
제2절 白凡民族主義의 性格	제5장 自由와 民主主義의 統合
제3장 白凡民族主義의 特徵	제1절 階級獨裁批判
제1절 抵抗의 民族主義	제2절 民主主義의 實踐原理
제2절 種族의 民族主義	제6장 民主主義와 民族主義의 相關性
제3절 文化的 民族主義	제7장 結論

### 제1장 序論

白凡의 政治理念은 日本帝國主義의 가혹한 植民統治로 인한 國權喪失의 과정에서 또는 國土와 民族의 分열적 상황속에서 民族자신들의 統一局面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실천적 양태로 表출되고 있다. 그의 사상은 한마디로 民族主義에서 출발하여 民族主義로 끝났다<sup>1)</sup>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그의 사상은 피와 역사를 같이하는<sup>2)</sup> 민족을 기초적 單位로서 설정하고 있다. 백범의 민주주의론의 政治理念도 민족주의라는 시각에서 형성되고 전개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사상적 맥락에서 白凡의 政治理念을 살펴보면 조선조사회가 지니는 신분차별적 구조하의 인간불평등상황에서 자신이 실질적으로 체험했던 제일차적 환경에서의 가치박탈에 起因하는 私的 動機의 公的 目標에의 전이<sup>3)</sup>를 통해 인간적 불평등주의에 매몰되어 있던 민족의 일체감을 지니게 되었고 이러한 토대위에서 민족의 생존과 발전을 위해 民族自主路線<sup>4)</sup>을 추구하고 있다.

\* 한국해양대학교 교양과정부 강사(정치학 전공)

1) 윤세원, '백범의 정치사상에 관한 연구', 정경논집제17집(중앙대학교정경대학, 1981) P. 62

2) 김구, 백범일지(교문사, 1980) P. 290

3) 손세일, '김구선생의 민족주의', 나라사랑 제21집, P. 70.

4) 유병필, 백범의 정치사상에 관한 연구(중앙대학교대학원, 1988), P. 88

인간차별적인 사회구조와 강제력을 수반한 日帝統治라는 이중구조속에서 民主主義의 이념적 활성화가 이루어졌고 解放直後 외세의 이입과정에서 분단이테올로기 수용의 체제화 현상<sup>5)</sup>에 대한 총체적인 대응속에서 民族主義가 확대재생산되었다.

특히 民族分斷이 현실화되는 시점에서 "반쪽정부는 무용"이라는 신념하에 통일정부수립에의 政治路線을 펼친 것은 백범 정치이념의 민족주의적 집약성을 보인 것으로 평가되는 것이다.

미소양대국사이의 냉전체제적 구조에 영향을 받아 自由民主主義와 社會主義間에 극심한 대결<sup>6)</sup>로 이데올로기의 외세영합적 경향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속에서도 자신의 정치이념을 형해화시키지 않고 도리어 統一自主獨立을 民族의 유일한 팔로<sup>7)</sup>로 인식하고 그의 사상적 역할을 民族共同體의 結合에 두고 있는 것은 민족사적 평가를 받아 마땅하다고 하겠다.

## 제 2 장 民族主義의 概念化와 本質

### 제1절 民族과 階級의 差別性

白凡의 정치이념을 응축적으로 表現한다면 민족주의라고 할 수 있다. 白凡이 出生하던 1876년은 메이지유신(明治維新)으로 급속히 발전한 日本資本主義가 부패정치와 와중에서 헤어날 수 없었던 한국정부에 대해서 무력위협하에 이른바 병자수호조약을 맺고 경제수탈, 主權의 侵害를 자행하기 시작했던 해<sup>8)</sup>로 이와같은 시대적 배경은 그로 하여금 民族意識을 자각하게 하는 基礎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일제부흥 해방이후 전 정치활동 기간중 白凡은 民族을 바탕으로한 自主的인 獨立國家를 形成하기 위한 路線을 전개해왔다. 白凡에 있어서 민족은 階級 觀念이나 理想的의 性向을 초월한 것으로서 영원한 運命共同體<sup>9)</sup>적 意味로써 받아들이고 있다.

민족에 대한 認識 基準을 血緣團體라는 從屬의 共同體의 관점에서 보고 있는데 민족의 일차적 구성요소로써 血緣의 重要性을 強調 하고 있다.<sup>10)</sup> "철학도 변하고 정치, 경제의 학설도 일시적이거나 민족의 혈통은 영구적이다"<sup>11)</sup> 라면서 그의 민족관을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 
- 5) 진덕규, '김구와 한독당', 월간조선, 1985년 8월호, P. 424.
  - 6) 진덕규, '한국의 보수주의와 진보주의', 신동아, 1979년 11월호, P. 159.
  - 7) 조선일보, 1948년 7월 22일자
  - 8) 조일문, '김구의 독립투쟁과 독립사상', 통일문제연구제1집(건국대학교 통일문제연구소, 1976), P. 15
  - 9) 윤세원, '백범의 정치사상과 통일노선', 백범연구 제2집, 1986, P. 80
  - 10) 민족을 血緣의 관점에서 성격을 규정하고 있는 대표적인 학자는 바하(B. Bauch로 그는 민족이나 국민을 血의 공동 결합을 유대리한 단체 즉 자연적 민족적 동일 종족 통일체로 규정하고 있다.) 고범서의, 현대정치이데올로기총론, 학문사, 1988, p. 50). 현대민족주의의 성격과 展開過程에 대해서 고찰한 진덕규는 민족을 인식하고 있는 여러 주장들을 몇 갈래로 구분해서 설명하고있다. 첫째, 혈연의 관점. 둘째, 언어나 문화 또는 전통의 동질성의 차원. 셋째, 狀況의 要素 넷째, 國家制度的인 관점에서 민족의 개념을 고찰하고 있다. 구체적인것은 진덕규, 현대민족주의의 이론구조(지식산업사, 1983), pp. 18~23 참조
  - 11) <民族國家> '나의 소원', 김구, 앞의 책, P. 291

피와 역사를 같이하는 민족이란 완연히 있는 것이어서 내 몸이 남의 몸이 못 됨과 같이 이 民族이 저 민족이 될 수는 없는 것이 마치 형제도 한 집에서 살기 어려움과 같은 것이다. 들 이상이 합하여서 하나가 되자면 하나는 높고 하나는 낮아서 하나는 위에 있어서 명령하고 하나는 밑에 있어서 복종하는 것이 근본 문제가 되는 것이다.<sup>12)</sup>

이와 같은 민족관은 민족이 비록 血緣 共同體의 본질을 그 일차적 구성 요인으로 두고 있지만 아울러 歷史的 共感帶에 의한 연대의식<sup>13)</sup>도 민족의 인식적 기초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白凡이 지니고 있는 민족의 概念은 階級과 關聯해서는 보다 명백히 차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일찍 어느 민족 내에서도 혹은 종교로, 혹은 학설로, 혹은 경제적·정치적 이해 충돌로 하여 두파 세파로 갈려서 피로써 싸운 일이 없는 민족이 없거니와 지내어 놓고 보면 그것은 바람과 같이 지나가는 일시적인 것이요, 민족은 필경 바람 잔 뒤의 초목 모양으로 뿌리와 가지를 서로 걸고 한 수풀을 이루어 살고 있다. 오늘날 소위 좌우익이란 것도 결국 영원한 혈통의 바다에 일어나는 일시적인 풍파에 불과하다는 것을 잊어서는 아니 된다.<sup>14)</sup>

白凡은 계급을 주로 社會生活의 矛盾과 對立<sup>15)</sup>의 反映物로 規定한데 반해 민족은 政治社會에서 볼 수 있는 葛藤과 反目關係를 통합시킬 수 있는 統一體의 意味로서 表現하고 있다.

계급이 一時的이며 橫斷的인 要因을 內包하는 데 반하여 민족은 永久的이고 縱斷的인 要因을 지니고 있다<sup>16)</sup>고 고찰 된다. 즉 계급이 '주의'를 의피로 한 한시적 개념이라면 민족은 '혈통과 역사'를 구성요인으로 하는 무한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계급의 短期的 性格과 民族의 長期的 性格間의 구별적 신념에 대해 白凡은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일부 소위 좌익의 무리는 혈통의 조국을 부인하고 소위 思想의 祖國을 운운하며 혈족의 동포를 무시하고 소위 사상의 동무와 프롤레타리아트의 國際的 階級을 主張하여 民族主義라면 마치 이미 진리권 외에 떨어진 생각인 것같이 말하고 있다. 심히 어리석은 생각이다.<sup>17)</sup>

이처럼 白凡에 있어서 民族은 至上이었고 絶對였다. 민족을 무엇보다 중시하고 어떠한 世界性을 띤 宗

12) <民族國家>, 위의 책, PP. 290-291.

13) 여기서 역사적 공감대라는 것은 과거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또는 미래로 이어질 수 있는 현재의 상황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모든 內外的 衝擊을 통하여 그것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거의 비슷한 동일감정을 가지게 되는 成員들의 마음의 상태이고 연대의식이 지니는 의미는 이러한 歷史的 共感帶를 토대로 하여 나와 남과의 關係가 우리 의식으로 전환되는 것을 뜻한다. 구체적인 것은 진덕규, 앞의 책, pp. 22-23 참조

14) <民族國家>, 앞의 책, p. 291.

15) 조일문, 앞의 글, p. 19.

16) 위의 글, p. 19

17) <民族國家>, 앞의 책, p. 291.

敎나 사상도 민족보다 클 수 없다고 보았다.<sup>18)</sup>

白凡의 민족지상주의는 民族的 自存을 기반으로 하는 民族意識(national consciousness)<sup>19)</sup>의 產物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민족의식을 토대로 한 자기 민족의 절대성과 배타성에 대해서는 거부하고 있다. 이에 대해

내가 원하는 우리 민족의 사업은 결코 세계를 무력으로 정복하거나 경제적으로 지배하려는 것이 아니다. 오직 사상의 문화, 평화의 문화로 우리 스스로 잘 살고 인류 전체가 의롭게 살도록 하는 일을 하자는 것이다.<sup>20)</sup>

라고 하여 민족의 非合理的 構造로써의 정서적, 무자각적 요인을 배척하고 있다. 東學에의 입도를 통해서 형성된 만민평등의 사상은 자민족의 절대성과 더불어 타민족의 절대성도 認定<sup>21)</sup>하게 하는 민족의 결합을 표출하고 있다.

## 제 2 절 白凡民族主義의 性格

民族主義는 발전형태의 다양함<sup>22)</sup>과 相異한 發展過程<sup>23)</sup>으로 인해서 개념 규정상 단답형의 것이 못되며 상당히 複雜하고 논자간에 합의성을 지니지 못하고 있다.<sup>24)</sup> 그러나 白凡은 민족주의를 “민족으로서 해야 할 사업”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보고 민족 성원 전체의 자각과 統一運動에 의한 애국적 표현<sup>25)</sup>으로 일체화하고 있다.

민족으로서 하여야 할 最高의 任務<sup>26)</sup>를 完成시키는 척도로서의 민족주의의 과제는

- 
- 18) 선우진, '김구선생과 애국사상', 나라사랑, 제21집, p.112. 선우진은 백범에 있어서 民族이 지니는 시대성에 대해 "흔히 많은 사람들이 민족에 앞세우는 宗教나 思想도 선생에게는 영구적인 민족의대하 위에 때에 따라 일어날 수 있는 한낱 풍랑이나 물거품으로 밖에 보이지 않았고 그러한 시대적이고 가변적인 것들이 일시적으로 어떠한 설득이나 힘을 지니더라도 本質的으로 초시대적이고 永久的인 민족과 동일시될 수는 없다고 믿었다."라고 평가하고 있다. 위의 글, p.113.
- 19) 백범의 民族意識에 대해서 유병필은 세가지로 나누어 고찰하고 있는 데 첫째, 모든 구성원들이 자기 의식으로 思考해야함을 의미하고 둘째, 내나라의식이고 셋째, 평등의식이다. 유병필, 앞의 글, pp. 57-58
- 20) <民族國家>, 앞의 책, p.293.
- 21) 선우진, 앞의 글, pp.113-114. 백범은 이와 관련하여 "내가 남의 침략에 가슴이 아팠으니 내 나라가 남을 침략하는 것을 원치 아니한다. 우리의 무력은 우리의 생활을 풍족히 할 만하고 우리의 강력은 남의 침략을 막을 만하면 족하다"고 말하고 있다.<내가 원하는 우리나라>, '나의 소원'중, 앞의 책, p. 301.
- 22) 장덕환, 현대의 정치학(박영사, 1982), pp.137-139.
- 23) 구체적인 것은 Edward H.Carr, Nationalism and After(New York:St.Martins Press, Inc., 1945), pp.2-3참조
- 24) 유영준, '백범민족주의에 관한 소고:그 정치적 재조명', 나라사랑 제21집, p.44.
- 25) 진덕규, '김구와 한독당', 월간조선, 1985년 8월호, p.426.
- 26) <民族國家>, '우리의 소원', 앞의 책, p.292.

첫째로 남의 절제도 아니 받고 남에게 의뢰도 아니 하는 完全한 自主獨立의 나라를 세우는 일이다. 이것이 없이는 우리 민족의 생활을 보장할 수 없을 뿐더러 우리 민족의 精神力을 자유로 발휘하여 빛나는 文化를 세울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완전 자주 독립의 나라를 세운 뒤에는 둘째로 이 지구상의 人類가 진정한 평화와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사상을 낳아 그것을 먼저 우리 나라에 실현하는 것이다.<sup>27)</sup>

로 명시하고 있다. 이와같은 민족주의의 課業에 의해서 白凡是 해방전에는 조국 광복을 위해서 해방 후에는 自主的인 獨立統一國家를 이루기 위해서 전력 투구했다. 또한 理念과 實踐의 귀일속에서 '내가 원하는 우리나라'가 成就될 수 있다는 의미로써

어느 민족도 일찍 그러한 일을 한 이가 없었으니 그것은 공상이라고 하지 말라 일찍 아무도 한 자가 없길래 우리가 하자는 것이다. 이 큰일은 하늘이 우리를 위해 남겨 놓으신 것임을 깨달을때에 우리 민족은 비로소 제 길을 찾고 제 일을 알아 본 것이다.<sup>28)</sup>

라고 하여 그의 確固한 意志를 表明하고 있다. 해방 후 민족통일 운동에 대한 白凡의 노선 전개는 韓民族主義의 實踐 과정으로서 種族的 利益이나 이데올로기적 편협성을 超越한 양상을 띠고 민족 구성원의 통합과 통일의 차원에서 이해될 수 있다.

白凡의 민족주의의 성격적 규정에 대해서는 현대적인 면<sup>29)</sup>보다는 古典的<sup>30)</sup>이고 傳統的인 면이 보다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社會革命과 反帝國主義의 基調를 그 특징으로 하고 있는 현대적 민족주의와는 달리 김구의 민족주의는 민족의 감정과 그 감정의 구체적인 結集이라 할 수 있는 민족국가의 형성에 主안점<sup>31)</sup>을 두고 있는 전통적인 민족주의<sup>32)</sup>의 유형으로서 생각된다.

27) 〈民族國家〉, 위의 책, p. 292.

28) 〈民族國家〉, 위의 책, p. 293.

29) 현대적 개념으로서의 민족주의는 1950년대 이후 두드러지게 표출되고 있는데 주로 제3세계 민족주의의 성격 규정과 일치하는 것으로 민족 성원 개개인에게 평등적인 상황을 부여함으로써 인격적 자기 완성으로 지향하게 하려는 政治的 신념체계를 의미한다. 국내적으로는 계급적, 신분적, 지역적 또는 정치적 불평등이나 차등의 制約을 제거하고 國家的으로는 각 主權國家들의 獨立을 이저함으로써 주권평등의 원칙을 실현하는데 있다. 이러한 현대적 민족주의는 반제국주의와 반식민주의로 귀착되어 반서구주의를 지향한다. 구체적인 것은 진덕규, '한국민족주의의 이념과 성격', 진덕규의, 한길 역사 강좌 3: 한국현대사와 역사의식(한길사, 1987) pp. 8-9.

30) 백범의 김구사상을 고전적 민족주의로 규정하고 있는 이는 송건호로 그는 古典的이라는 表現을 쓰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그의 사상이 구시대적이면서도 중국에서의 항일투쟁에서나 8.15후의 國土分團과 政治的 혼란속에서나 그 민족노선이 이승만과는 달리 냉전의 물결에 편승하지 않고 오로지 민족의 自主와 統一을 위해 즉 민족의 利益을 위해 생애를 바쳤다는 그 순수성"으로 분석하고 있다. 송건호, 한국현대인물사론(한길사, 1984), p. 63

31) 진덕규, '김구와 한독당', 앞의 책, p. 425.

32) 전통적 민족주의에 대해서는 진덕규, '한국민족주의의 이념과 성격', 앞의 책, p. 8.

## 제3장. 白凡民族主義의 特徵

## 제 1절 抵抗의 民族主義

민족주의에 관한 定義는 민족의 수만큼이나 복잡하다고 할 수 있다. 思想史的 基盤과 理念的 展開 樣相의 差異로 인해서 학자에 따라 그 개념 규정이 각양각색<sup>33)</sup>으로 나타나고 있다.

白凡이 일생동안 국권 회복과 자주독립국가 실현이라는 韓國民族主義의 과제<sup>34)</sup>를 실천하는 과정에서도 다양하고 포괄적인 민족주의의 양태를 보여주고 있다. 우선 白凡의 민족주의는 저항적 민족주의라고 파악할 수 있는데 서구의 민족주의<sup>35)</sup>의 시발은 대내적인 억압지배층에 대한 市民權 確立에 있었고 이념으로는 個我的 自由와 解放에 있었다.<sup>36)</sup>

서구민족주의는 民族國家 수립이라는 統一의 과업과 民族主義的 體制의 達成이라는 자유의 이중 과업을 긴 세월을 통해 단계적으로 성취했으나 비서구적 민족주의의 典型으로 평가되는 抵抗民族主義 (Resistance Nationalism)<sup>37)</sup>의 경우는 민족자결권이 밖으로부터 통째로 부정되는 상태의 민족주의인 고로 그 대내적인 體制의 정비는 아예 돌아 볼 여지가 없게 된다.<sup>38)</sup>

저항민족주의를 "한 민족 또는 國家가 他 民族 및 國家의 侵犯을 배격하고 자기 民族의 동질성과 국가 주권, 독립, 자결권을 갖고자 노력하는 것"<sup>39)</sup>으로 정의할때 反植民主義 鬭爭에 모든 역량을 집중시킨 白凡이야말로 韓國民族主義의 抵抗의 性格을 가장 극명하게 노정시킨 인물로 평가된다.

그는 獨立에 대한 希求를 다음과 같이 표명하고 있다.

33) 김우태는 民族主義 概念이 다양성을 지니고 있는 원인으로써 첫째, 그 개념이 역사적의 흐름속에서 형성 변질되어온 역사적 현상이고 둘째, 공간적 특수성속에 따라 相異한 內容을 지니게 된 유동적 복합현상이라는 점 셋째, 그 대상을 연구하는 학자들의 접근방법이 그들의 世界觀의 차이나 학문분야의 상이에 따라 통일을 기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우태, 한국민족주의 연구(부산대학교 대학원, 1984), p. 17.

34) 한말의 시기와 식민지시대 그리고 분단이후 시기의 한국민족주의 과제는 衛正斥邪, 東道西枝, 開化 및 東學이라는 4대 원류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외세의 식민지배하의 民族主義 課題는 일본 제국주의 驅逐을 통한 독립국가로서의 주권회복에 있고 분단시대의 한국민족주의의 과제는 즉 통일적 과업이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인 것은 김우태, 위의 글, pp.138-143; 진덕규, '한국민족주의의 이념과 성격', 앞의 책, pp.9-27 참조.

35) 民族主義에 대한 현저한 업적을 이룬 한스콘은 민족주의를 크게 서구형과 비서구형으로 나누어서 그 발생동기, 성격 및 전개순서로 두형을 비교 고찰하고 있다. 구체적인 것은 Hans Kohn, The idea of Nationalism(New York:The Macmillan Co., 1946) pp.329-334.

36) 이용희, 한국민족주의(서문당, 1977)p.26.

37) 저항민족주의에 대한 설명은 위의 책 pp.20-30; 차기벽, '저항적민족주의의 문제 : 그 대의면', 노재봉(편), 한국민족주의와 국제정치 : 동주이용희선생사은학술심포지움(민음사, 1983), pp.12-31; 안병준, '민족주의와 한반도', 국제정치논총 제23집(한국국제정치학회, 1983), pp.3-92; 김우태, 앞의 논문, pp.67-73 참조.

38) 이용희, 위의 책, p.26; 이용희는 저항민족주의의 이와같은 배경으로 인해서 자칫하면 전통주의의 미화, 역사적적인 것을 내것으로 승화시켜 그 고유성이라는 것을 견지하려는 국수의 자세까지 낳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동포여러분! 나 김구의 소원은 이것 하나밖에 없다. 내과거의 70평생을 이 소원을 위하여 살아왔고 현재에도 이 소원때문에 살고 있고 未來에도 나는 이 소원을 달하려고 살 것이다....나에게는 세상에 가장 좋은 것이 완전하게 自主 獨立한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보다가 죽는 일이다. 나는 일찍 우리 獨立政府의 문지기가 되기를 원하였거니와 그것은 우리나라가 獨立國만 되면 나는 그 나라의 가장 미천한 자가 되어도 좋다는 뜻이다. 왜 그런고 하면 독립한 제 나라의 빈천이 남의 밑에 사는 富貴보다 기쁘고 영광스럽고 希望이 많기 때문이다.<sup>40)</sup>

이처럼 白凡은 일본제국주의하에서 強勸的 支配下에 놓여있던 한국을 解放시켜 國권을 회복하여 주권 국가를 수립하는 것을 최우선적인 鬪爭 目標로 삼고 있음을 알 수 있다.<sup>41)</sup> 해방후에도 백범의 저항적 민족주의는 諸般 政治懸案에 대해서 의세를 배격하는 自主的인 政治路線을 展開하는데 중요한 뒷받침이 되었다.

## 제 2 절 種族的 民族主義

비서구적 민족주의는 民族解放鬪爭 過程에서 抵抗의 要素 이외에도 種族的 志向性이 강하게 표출되고 있다. 人種의 순수한 동질성에 대한 믿음을 기초로 한 백범의 사상 전개는 1947년 쓰여진 '나의 소원'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나는 공자, 석가, 예수 의도를 배웠고 그들을 성인으로 崇拜하거니와 그들이 합하여서 세운 천당 극락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 民族이 세운 나라가 아닐진대 우리 民族을 그 나라로 끌고 들어가지 아니할 것이다. 왜 그런고 하면 피와 역사를 같이하는 민족이란 완전히 있는 것이어서 내몸이 남의 몸이 못됨과 같이 이 民族이 저 民族이 될 수는 없는 것이 마치 형제도 한 집에서 살기 어려움과 같은 것이다. 둘 이상이 합하여서 하나가 되자면 하나는 높고 하나는 낮아서 하나는 위에 있어서 命令하고 하나는 밑에 있어서 服從하는 것이 根本 問題가 되는 것이다.<sup>42)</sup>

血緣團體라는 種族的 共同體의 관점에서 민족주의를 조망하고 이념이나 철학적 요소를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하고 민족역사의 항구성을 認識하고 있다.<sup>43)</sup>

이러한 종족적 민족주의는 저항적 민족주의와 연계되어 민족주의의 일차원적 함몰성에서 이탈시켜 보다 국권회복을 통한 "우리 민족"<sup>44)</sup>을 중심으로 하는 自主的 獨立國家 建設이라는 目標의 昇華를 이루게 되었다.

39) 유영준, '백범민족의에 관한 소고 : 그 정치적인 재조명', 백범연구 제1집, p.49.

40) <민족국가>, 앞의 책, pp.289-290

41) 백범민족주의의 저항적 요소에 대한 설명은 손세일, '김구선생의 민족주의', 나라사랑, 제21집, p.81 참조.

42) <민족국가>, 앞의 책, pp.290-291.

43) 유영준, 앞의 글, .p.62.

44) 우리민족에 대한 백범의 기대와 승모는 <내가 원하는 우리나라>(앞의 책)에서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 제 3 절 文化的 民族主義

白凡의 民族主義는 排他的 民族中心의 志向性을 超越하여 세계문화와의 조화속에서 민족의 發展을 도모하고 있는 것으로 자민족의 자주성과 주체성을 提高시키면서도 世界平和主義의 信條와의 密接한 關係속에서 자신의 이념을 구성하고 있다.

민족주의가 빠지기 쉬운 국가주의적 폐권성과 침략성을 排斥하고 국제사회와의 상호조화와 의존성을 인정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백범의 민족주의는 文化的 民族主義(cultural nationalism)의 속성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世界平和主義에 대해 白凡是 다음과 같이 말함으로써 그의 신념을 분명히 하고 있다.

나는 우리나라가 남의 것을 模倣하는 나라가 되지 말고 이러한 높고 새로운 文化的 근원이 되고 目標이 되고 모범이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진정한 世界의 平和가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로 말미암아서 世界에 실현되기를 원한다.<sup>45)</sup>

白凡民族主義의 世界 평화 질서와의 融合은 "우리나라가 가장 부강한 나라가 아니라 아름다운 나라가 되어"<sup>46)</sup> "우리 스스로 잘살고 인류 전체가 의롭게 즐겁게 사는"것을 意味한다. 이처럼 주체성속에서 世界성을 포괄한다는 그의 思想은 大同主義의 理想國家의 實現<sup>47)</sup>과 연결된다고 할 수 있다.

## 제 4 장 自由와 平等理念의 設定

### 제 1 절 自由精神과 人間平等

白凡是 자신의 政治理念을 한마디로 표시하면 自由라고 했다.<sup>48)</sup> 백범이 자신의 思想的 基調를 자유 사상에 두고 있는 것은 朝鮮朝 社會의 身分 階級的 構造속에서 직접 경험했던 人間平等<sup>49)</sup>에 대한 회의의 발로라고 할 수 있다.

백범이 소년기 때부터 人間不平等에 대한 의구심을 강력히 제기하고 있었다는 것은 동학의 입도를 통해서였다. 東學에 參與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 김구는

45) <내가 원하는 우리나라>, 앞의 책, p. 302.

46) <내가 원하는 나라>, 위의 책, p. 301.

47) 최영희는 백범의 세계평화주의사상을 기독교와 불교의 사상을 기반으로 있고 본인이 약소 민족의 설움을 받으며 민족운동을 하였던 체험속에서 우려 나온 것이기 때문에 고상적 이론과는 다른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최영희, '백범의 인간과 사상' 백범김구선생탄진100주년기념강연집(백범김구선생탄진100주년기념축전집행위원회, 1976), p.10.

48) "나의 政治理念은 한마디로 표시하면 자유다. 우리가 세우는 나라는 자유의 나라야 한다." <政治理念>, '나의 소원' 김구, 앞의 책, p. 294.

49) 白凡의 인간관에 대한 최근의 연구서로서는 유병필, 앞의 글, pp. 19-29 참조.



상능된 한이 골수에 사무친나로서는 東學의 平等主義가 더할 수 없이 고마웠고 또 이씨의 운수가 진하였으니 새나라를 세운다는 말도 해주의 과거에서 본 바와 같이 政治의 敗함에 실망한 나에게는 적절하게 들리지 않을 수가 없었다.<sup>50)</sup>

고 언급하고 있다. 어릴 적부터 양반이 아니기 때문에 감수해야 했던 社會的 不平等에 대한<sup>51)</sup> 그의 일생을 통하여 자유 민권의 신장과 평등 사상의 고취에 헌신하는 잠재력으로 作用<sup>52)</sup>했다.

民主主義의 基本 理念으로서 평등과 자유는 絶對的인 概念으로서 상정할 때 調和될 수 없는 상호배치적 성격<sup>53)</sup>을 지니고 있으나 백범은 인간평등은 자유사상을 통해서 실현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민주주의의 지주로서의 평등과 자유는 상대적인 개념을 의미한다.<sup>54)</sup>민주주의의 發展을 위해서는 자유가 최선의 要素라면 평등은 차선의 이념<sup>55)</sup>으로써 작용하여야 하고 양자의 상호 보완 및 조화속에서 진정한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백범의 自由思想은 現代民主主義가 提起하고 있는 자유와 평등의 統合의 시도에 肯定的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상호관계를 補充的인 關係로 보고 있는 것이다.

## 제 2 절 法的 規制下의 自由

백범은 자유를 단순히 拘束이나 強制가 없는 消極的인 概念(negative conception)<sup>56)</sup>으로 보지 않고 個人의 창 의와 발전이 촉진되고 사회 전체의 조화와 번영이 이룩되고 인류의 보다 크고 높은 문화에 도달할 수 있는 積極的 概念(positive conception)으로 把握하고 있다.<sup>57)</sup> 그래서 그는

자유란 무엇인가. 절대로 각 個人이 제멋대로 사는 것을 자유라 하면 이것은 나라가 생기기 전이나 저 레닌의 말 모양으로 나라가 消滅된 뒤에나 있을 일이다. 國家生活을 하는 인류에게는 이러한 無條件의 자유는 없다.<sup>58)</sup>

50) 김구, 앞의 책, p. 34.

51) 윤세원, 앞의 글, p. 84.

52) 조일문, 앞의 글, p. 22.

53) 자유와 평등의 관계에 대해서 여러가지 見解가 있으나 상호모순적 관계속에서 논리를 전개할 때 양자의 이념은 상호배치되는 면이 있으므로 도저히 調和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와 같은 견해를 표명하고 있는 이는 Durant로서 그는 자유와 평등을 상호 불상용의 관계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Durant, The Lessons of history(New York:Simmons and Schuster, 1968), p. 20.

54) 이서행, '민주주의', 고법서의, 현대정치이데올로기총론(학문사, 1988), p. 130.

55) 문헌상의, 인간과 윤리(대왕사, 1889), p. 118.

56) 소극적 자유(negative freedom)는 強制와 抑制의 결여상태(absence constraint and restraint)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H.J.Laski는 자유란 개인의 행복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사회적 조건에 아무런 구속을 가할 수 없다는 구속의 결여를 들고 있다. H.J.Laski, Morden State(London:George Allen & Unwin, 1948), p. 48.

57) 백범은 이러한 자유를 개인 본위적인 차원에서 벗어나서 사회본위적 차원에서 개념을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자유관념을 토대로 해서 그는 문화국가론을 전개하고 있다.

58) <정치이념>, 앞의 책, p. 294.

고 하여 자유에 대한 法的 拘束力을 분명히 하고 있다. 백법에 있어서 自由는 국가 성립 이전의 自然狀態(national state)하에서의 자유<sup>59)</sup>도 아니고 공산주의자들이 얘기하듯 國家가 소멸된 후의 자유를 일컫는 것도 아니다.<sup>60)</sup>

법을 토대로 한 國家의 規制力下의 자유를 설정하고 있다. "국가란 일종의 規範의 속박이기 때문"<sup>61)</sup>에 국가 생활속에서 진정한 자유를 향유할 수 있다는 것이다. 自由族任的인 自由<sup>62)</sup>秩序를 排斥하고 국가라는 테두리속에 限界線을 짓고 국가와 자유의 連에서 그의 자유관을 펼치고 있다.

또한 자유는 법의 근거를 통해 그 正當性이 附與된다고 주장하면서

국가 생활을 하는 우리를 束縛하는 것은 법이다. 個人의 生活이 國법에 속박되는 것은 자유있는 나라나 자유없는 나라나 마찬가지다.<sup>63)</sup>

라고 하여 國법을 기초로 한 자유를 말하고 있다. 그러나 백법에 있어서 "자유와 자유아님이 갈리는 것은 個人의 自由를 속박하는 법이 어디서 오느냐"<sup>64)</sup>하는 데 달려있다고 했다. 卽 법을 두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서 우선 國民의 自發的인 意思에서 導出된 법이 正當性이 있는 것으로 보고 國民에게는 아무런 權限과 責任이 없이 특정인이나 특정 계급을 통해서 이루어진 법은 正當性을 부여할 수 없는 것으로 看做했다. 그래서 백법은

자유있는 나라의 법은 國民의 자유로운 의사에서 오고 자유없는 나라의 법은 國民중의 어떤 일개인 또는 일계급에서 온다.<sup>65)</sup>

라고 하여 民主主義의 가장 核心的인 原理인 國民主權主義(Theory of Sovereignty of people)를 그의 政治的 理念으로 標榜하고 있다. 國家意思를 결정하는 최고 원동력을 國民에 둬으로써 그의 자유 개념은 民主主義 理念과 結合하여 보다 확고한 사상적 體系를 형성하고 있다.

自由를 國民의사의 표현인 헌법이나 법률에 正當性의 모태를 둬으로써 법의 지배(Rule of law)라는 民主主義的 요체에 충실히 추수하고 있다. 그의 자유는 이처럼 國民의 自意에 의한 법의 絶對化속에서 가능한 것이다.

59) 자연상태하에서 자유를 상정하여 이론을 전개하는 것은 시민사회인 국가성립의 正當性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예를 들어 룩크에 있어서 자연상태는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으로써 이러한 무질서한 개인의 상호대립과 투쟁의 상태에서 사회계약이 성립되어 국가 즉 정치사회가 형성된다. 구체적인 것은 데이브헬드(저). 이정식(역), 민주주의의 모델(인간사랑, 1989), pp. 57-91 참조

60) 장을병, '백법집구의 민주주의론', 백법연구 제3집, p. 110.

61) <정치이념>, 앞의 책, p. 294.

62) 백법은 이러한 자유를 무조건적인 자유라고 지칭하고 있다.

63) <정치이념>, 앞의 책, p. 294.

64) 위의 책, p. 294.

65) <정치이념>, 위의 책, pp. 294-295.

## 제 5 장. 自由와 민주주의 統合

### 제 1 절 階級獨裁批判

自由를 政治理念으로 삼고 있는 백범은 “政權에 참여하는 계급 하나를 제외하고는 다른 國民은 奴隸가 되고 마는”<sup>66)</sup> 獨裁政治를 배격하고 있는데 獨裁 나라에서의 법은 國民的 正當性을 확보하지 못하고 “일개 인 또는 일계급”에서 도출된 것이기 때문에 全體 國民의 自由를 보장할 수 없는 體制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러한 認識下에 그는

나는 어떠한 의미로든지 독재정치를 배격한다. 나는 우리 동포를 향하여서 부르짖는다. 결코 獨裁政治가 아니 되도록 조심하라고<sup>67)</sup>

獨裁中에서도 階級獨裁에 대한 백범의 注意와 警戒은 매우 지대한 것이다. 계급독재를 “일계급에서 오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통칭 ‘팍쇼’라고 칭한다고 보았다.

身分制의 不平等 構造와 人間不平等을 自由의 觀點에서 타파하려고 했던 백범에 있어서 계급독재는 도저히 容納할 수 없는 것이었다. 백범이 指摘한 계급독재의 의미는 權威主義的 獨裁가 아니라 全體主義的 獨裁體制<sup>68)</sup>를 뜻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백범은 이 범주에 속하는 체제로써 이탈리아의 파시즘, 독일의 나찌즘, 일본의 군국주의, 소련의 공산주의는 물론이고 조선조의 양반정치도 포함시키고 있다.

계급독재를 特定 階級에 의한 支配임과 동시에 “主義 즉 哲學을 基礎로 하는”<sup>69)</sup> 體制라고 생각하면서

君主나 기타 個人 獨裁者의 독재는 그 개인만 除去되면 그만이거나 다수의 개인으로 組織된 한 階級이 獨裁의 主體일 때에는 이것을 제거하기는 심히 어려운 것이니 이러한 독재는 그 보다도 큰 조직의 힘이거나 國際的 壓力이 아니고서는 깨트리기 어려울 것이다.<sup>70)</sup>

라고 하여 國家權力의 기초를 國民의사가 아니고 특정 階級에 두고 있는 體制의 非合理性을 強調하고 있다.

계급독재를 “다만 정치에 있어서만 독재가 아니라 思想. 學問. 社會思想. 家庭生活. 個人生活까지도 規制

66) <정치이념>, 위의 책, p. 295.

67) <정치이념>, 위의 책, p. 299.

68) 프리드리히와 브레진스키는 전체주의적 독재(totalitarian dictatorship)의 構造的 特征으로서 관제이데올로기, 단일대중정당, 폭력적인 경찰통제제도, 모든 유효한 대중매체의 독점, 모든 유효한 무기의 독점, 모든 경제에 대한 중앙통제 등을 들고 있다. 구체적인 것은 Carl J. Friedrich & Zbigniew K. Brzezinski, Totalitarian Dictatorship and autocracy(New York: Frederick A. Praeger, 1964), pp. 9-10.

69) <정치이념>, 위의 책, p. 295.

70) <정치이념>, 위의 책, p. 295.

하는 獨裁<sup>71)</sup>라고 설명하는데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백범의 계급독재는 현대 대중민주주의의 산물로서의 전체주의의 構造的 特徵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수백년동안 조선조에서 행해진 儒敎 그 중에서도 주자학파의 철학을 계급독재의 일환으로 규정하고 이 독재정치로 인해서 "우리 民族의 文化는 소멸되고 원기는 마멸"<sup>72)</sup>되었을 뿐만 아니라 주자학 이외의 학문은 全體主義的 敎理(totalitarian doctrin)로 인해서 發達하지 못했고 이와 같은 影響은 政治와 學問 이외에도 藝術. 經濟. 産業에 까지 미쳤다고 설명하고 있다.<sup>73)</sup>

## 제 2 절 民主主義의 實踐原理

자유를 根幹으로 하는 백범의 민주주의론은 反封建, 反獨裁, 反共產主義<sup>74)</sup>를 표방하고 있다. 그는 共產主義에 대해서 "독재정치중에서도 가장 철저한 것"으로 보고 독재정치의 모든 불합리한 특징을 가장 극단적으로 발휘하고 있다면서 다음과 같이 논하고 있다.

헤에켈에게서 받은 辨證法, 포이에르바하의 唯物論의 두가지와 아담스미스의 노동가치론을 가미한 마르크스의 학설을 최후의 것으로 믿어 공산당과 소련의 法律과 軍隊와 警察의 힘을 한데 모아서 마르크스의 학설에 일점 일획이라도 반대는 과하고 批判만하는 것도 엄금하여 이에 위반하는 자는 죽음의 숙청으로써 대하니 이는 옛날의 조선의 斯文亂賊에 대한 것 이상이다.<sup>75)</sup>

라고 하여 확고부동한 反共主義的 立場을 천명하고 自由主義의 信奉者<sup>76)</sup>로서의 위치를 분명히하고 있다. 反獨裁에 대한 그의 정치이념은 철학을 위한 철학<sup>77)</sup>이나 사상을 위한 사상이 아니라 19세기 말엽에서 20세기 중엽에 걸쳐 우리 민족의 苦難과 이의 극복을 위한 民族運動의 체험에서 우리나라 實踐하는 철학이었다.

1926년 12월 14일 백범이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제5대 국무령으로 취임<sup>78)</sup>하여 자신의 권력 기반을 強化

71) <정치이념>, 위의 책, p. 295.

72) <정치이념>, 위의 책, p. 295.

73) 우리나라에 끼친 주자학의 폐단에 대해서 백범은 우리나라가 망하고 민력이 쇠잔하게 된 가장 큰 原因이 실로 여기 있었다. 왜 그런고 하면 國民의 머리 속에 아무리 좋은 사상과 경륜이 생기더라도 그가 執權 階級의 사람이 아닌 이상 또 그것이 사문난전이라는 범주 밖에 나지 않는 이상 세상에 발표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짝이 트려다가 눌러 죽은 새 사상 짝도 트지 못하고 밝혀버린 경륜이 얼마나 많을까"라고 통렬히 미팔고 있다. <정치이념>, 위의 책, pp. 295-296.

74) 최영희, 앞의 글, p. 10.

75) <정치이념>, 앞의 책, p. 296.

76) 유명준, '백범민족주의에 관한 소고', 백범연구 제1집, p. 63. 百凡是 공산당이 주장하는 소련식 민주주의가 세계에 퍼진다면 "전 인류의 사상은 마르크스주의 하나로 통일될 법도 하거니와 실사 그렇게 통일 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불행히 잘못된 이론일진대 그런 큰 인류의 불행은 없을 것이다." 라고 기술하고 있다. <정치이념>, 위의 책, p. 296.

77) 이때의 哲學은 白凡이 말하는 주의 (Ideology)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상적 성격을 뜻한다.

78) 임시의정원 의장 이동녕이 백범을 찾아와서 국무령(대통령)이 되기를 간청했을 때 백범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사양하였다. 첫째, 나같이 미천한 사람이 일국의 원수가 된다는 것은 國家와 민족의 위신에 큰 관계가 있다는 것이고 둘째, 내각조직에 있어서 나 같은 사람에게 옹할 인물이 없을 것이란 것이다. 김구, 앞의 책, p. 228.

시키고 권력 행사를 확대시키는 대신에 한사람에게 責任을 지우는 국무령제를 廢止하고 국무위원제를 골자로 하는 개헌안을 1927년 2월 15일 제16회 임시의정원에서 통과시켜 3월 5일 공포하였다.<sup>79)</sup>

국무위원제는 국무령제와는 달리 “모든 국무위원에게 權利에서나 責任에서나 平等”<sup>80)</sup>함은 附與하는 집단지도체화<sup>81)</sup>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國務는 대한민국 임시약헌 제28조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국무위원으로서 組織한 國務會議의 결의로서 총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김구가 국무회의의 초대 주석이 되었으나 임시약헌 제36조에 따라 主席은 국무위원이 호선했기 때문에 주석은 회의의 주관자에 불과하고 또 국무위원들이 교대로 말을 수 있게 되어 있어서 국무령과는 다르다. 그리하여 혹은 윤회 주석제도라고도 한다.<sup>82)</sup>

제3차개헌은 그 내용에 있어서 君主制的인 殘在가 훨씬 청산되고 民主共和制的인 民衆意識的 性格이 농후하게 나타나고 있음<sup>83)</sup>으로 해서 대한민국임시정부가 동헌법으로 인해서 보다 민주적 체제로의 轉換이 이루어 졌음을 엿볼수 있겠다.<sup>84)</sup>

이처럼 白凡是 權力擴大와 權力誇示라는 政治權力의 基本的 屬性<sup>85)</sup>을 무시하고 권력의 分散을 통해서 민주주의 概念的 차원에서 실천적 차원으로 전화시켰다.

민주주의에 대한 白凡의 實踐意志는 해방정국에서도 정당통합운동이나 좌우합작운동 및 남북협상등에서도 그대로 투영되고 있다. 그는 民主主義를 “國民의 意思를 알아보는 한 節次 또는 方式이요 그 內容은 아니다”<sup>86)</sup>라고 설명하고 있다.

白凡是 민주주의를 言論의 自由, 投票의 自由 그리고 多數決에의 服從에 두고 있는데 여기서 민주주의를 자유를 확보하기 위한 방법론적 수단 기제로 삼음으로써 민주주의의 本質的인 이념과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을 혼동하고 있음<sup>87)</sup>을 보여지고 있음을 지적할 수 있다. 그리고 백범은 민주주의를 가능하게 하는 가장 주용한 核心的인 政治的인 토양으로써 의견의 多樣性을 들고 있다.

어느 한 학설을 표준으로 하여서 국민의 사상을 속박하는 것은 어느 한 宗教를 국교로 정하여서 국민의 信望을 강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옳지 아니한 일이다.<sup>88)</sup>

라고 하여 다양한 의견의 차이를 통해서 합의를 도출해내는 민주주의적 실천 조건으로 認識하고 있다.

79) 1919년 4월에 臨時政府가 조직된 후 상기 헌법은 제3차 개헌인데 그 제정과정, 내용 및 성격에 대해서는 이현희, 대한민국임시정부사연구(동국대학교대학원, 1981), pp. 199-203.

80) 김구, 앞의 책, p. 229.

81) 손세일, 이승만과 김구(일조각, 1980), p. 96.

82)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편), 독립운동사 제4권: 임시정부사(독립유공자사업기금운영위원회, 1973), P. 560. 제5장 50개조로 구성된 제3차 임시약헌의 전문은 위의 책, PP. 556-559 참조.

83) 이현희, 한국근대사와 민중의식(담구당, 1981), pp. 220-228 참조.

84) 이현희, 앞의 글, p. 200. 국무위원제가 안고 있는 민주적 특징에 대해서는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편), 앞의 책, pp. 560-563; 이강훈, 대한민국임시정부사(서문당, 1977), pp. 161-164 참조.

85) 정치권력의 기본속성에 대해서는 Hans J. Morgenthau의 저술인 Politics Among Nations의 제3장 정치권력편 pp. 31-51 참조.

86) <정치이념>, 앞의 책, p. 298.

87) 윤세원, 앞의 글, p. 87.

그래서

한 사람의 생각, 한 학설의 原理로 國民을 統制하는 것은 일시 속한 進歩를 보이는 듯하더라도 필경은 兪통이 생겨서 그야말로 辨證法的 暴力의 革命을 부르게 되는 것이다.<sup>89)</sup>

라고 말함으로써 多樣的 意見의 表출이 민주주의와 獨裁를 구분시키는 요소라고 생각하고 있다.<sup>90)</sup> 이와 같이 백범은 多樣性의 土壤위에서 민주주의는 言論의 自由를 통해 역사적 진보를 이룰 수 있다고 주장하고 언론의 자유가 없는 획일화된 蘇聯式 民主主義를 공박하고 있다.

國民은 나라의 근본이고 국가권력을 創出하는 源泉이기 때문에 “한 사람 또는 몇 사람의 호령으로 끌고 가는 것”은 극히 부자연스럽고 위대한 일이라고 언급하고 國民의 多樣性을 인정치 않을 때는 파시스트 이탈리아와 나찌스 독일의 경우처럼 不幸한 일이 초래될 것이라고 警告하고 있다.<sup>91)</sup>

백범은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核心的 原理인 다수결의 원칙에 대해서 미국식 민주주의의 예를 통해서 그 합리성을 토로하고 있는데

미국은 이러한 독재국에 비겨서는 심히 통일이 무력한 것같고 일의 진행이 느린 듯하여도 그 결과로 보건대 가장 큰 힘을 발하고 있으며 이것은 그 나라의 民主主義 政治의 效果이다.<sup>92)</sup>

라고 표현하여 國家意思를 결정함에 있어서 多數決의 原則으로 정하는 것이 민주정치 질서를 維持하는 중요한 因子로 생각하고 있다. 물론 다수결의 원칙이 가장 이상적인 합의 도출 방식은 아니지만 실제로 전성원이 일치된 행동의사를 誘導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民主主義를 가능하게 하는 요인중 다수결의 원칙은 최선책은 아니지만 차선적인 의사 결정 방식으로 간주되고 있다.

意見은 自由로운 토의하에서 이루어진 다수결의 결정이 민주주의의 원리를 發展시키고 유지하는데 얼마나 큰 力量을 구사하는 가에 대해서 백범은 다음과 같은 論理를 제기함으로써 정당성을 표시하고 있다.

무슨 일을 의논할 때에 처음에는 백성들이 저마다 제 의견을 발표하여서 囂囂效效하여 귀일할 바를 모르는 것 같지만, 갑론을박으로 서로 토론하는 동안에 의견이 차차 정리되어서 마침내 두어 큰 陣營으로 包攝되었다가 다시 다수결의 方法으로 한 결론에 달하여 國會의 결의가 되고 원수의 결제를 얻어 法律이 이루어지면 이에 國民의 의사가 결정되어 요지부동하게 되는 것이다.<sup>93)</sup>

88) <정치이념>, 앞의 책, pp.296-297.

89) <정치이념>, 위의 책, p. 297.

90) 다양한 의견이 이루어지는 곳에서 자유와 문화가 꽃을 피우는 민주주의 나라가 형성될 수 있다고 白凡은 생각하고 있다.

91) <정치이념>, 위의 책, p. 297. 여기서 그는 국민은 군대의 병정도 아니고 감옥의 죄수도 아니라는 의견을 개진하여 民主主義가 국민적 지지와 의견을 토대로 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92) <정치이념>, 위의 책, pp. 297-298.

## 제 6 장 民主主義와 民族主義의 相關性

白凡是 民主主義에 대한 政治理念을 독재와 대비시켜서 확고히 표방하고 있지만 작금의 서구적 민주주의가 가장 理想的인 體制로 보지 않고 여러가지의 결함을 지속적으로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또한 각 나라가 민주주의를 發展시켜 나가는 데는 스스로의 傳統을 維持해야 된다<sup>94)</sup>는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

美國式 民主主義는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한 輿論의 형성 과정에서 보는 것처럼 민주주의를 가능하게 하는 言論의 自由가 보장<sup>95)</sup>되어 蘇聯式 民主主義와는 대조적이긴 하지만 “반드시 最後的인 完成된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無限히 創造的 進化”<sup>96)</sup>를 거쳐야 한다고 보고 있다.

그래서 미국식 민주주의가 地上에서 唯一無二한 최고 형태의 정치 체제<sup>97)</sup>가 아니기 때문에 각 나라의 歷史的 背景이나 政治文化的 背景에 따라서 주체적인 수용 자세의 必要性을 強調하고 있다.

남의 나라의 좋은 것은 취하고 내 나라의 좋은 것을 골라서 우리나라 독특한 좋은 制度를 만드는 것도 世界의 文運에 보태는 일이다.<sup>98)</sup>

라고 하여 民主主義 制度에 대한 民族的 要素와의 結合을 내세우고 있다. 民族史와 傳統속에서 계승 발전시켜야 할 제도를 西歐的 民主主義와 連繫시켜 민족 주체적인 秩序를 창출하자는 백범의 견해는 서구형 민주주의에 대해 아무런 여과 작용없이 移植하려는 외세의존적 정치세력에 대한 경고적 성격을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民主主義의 完成體는 민족주의를 통해서 이루어 진다는 意味를 지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어떠한 형태로든 自由를 抑壓하고 사고를 획일화 시키는 政治體制나 思想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sup>99)</sup> 민주주의에 대한 백범의 논리전개나 政治活動의 실천양상으로 미루어 볼 때 西歐 民主主義의 理念과 制度를 土着化시키는 과정에서 민주주의의 핵심적 사항이 보호되지 않는 상황은 反對하고 있음이 분명하다고 하겠다.

民主主義가 小國의 독립과 分斷國의 통일을 위해 불가결한 요소이지만 민주주의와 接木되지 못하면 統治者의 전유물이 되거나 독재정치의 유효적절한 방편이 되기 싫다.

절대군주에 대한 항거의 차원에서 서구민족주의가 성장했고 일제 통치에 대항하여 韓國民族主義가 成長했지만 外勢에 항거하고 專制獨裁君主에 抗拒하는 민족주의는 原初的 民族主義라고 할 수 있다.

93) <정치이념> 위의 책, pp. 297-298.

94) 장을병, '백범김구의 민주주의론', 백범연구 제3집, 1987, p. 114.

95) 백범은 민주주의를 언론의 자유, 투표의 자유, 다수결의 복종 등 세가지로 들고 있다.

96) <정치이념>, 앞의 책, p. 299. 미국식 민주주의에 대해서 백범은 하나의 이상형(ideal type)으로 제시한 것이 아니라 소련식 민주주의와의 비교 선상에서의 우열이라고 할 수 있다.

97) 윤세원, 앞의 글, p. 87.

98) <정치이념>, 앞의 책, p. 300.

진정한 민족주의는 민주주의 土臺위에서 形成된다고 할 때 백범의 민주주의와 민족주의간의 相關性的 역설<sup>100)</sup>은 매우 탁월한 理念的 模形(ideological paradigm)으로 여겨진다.

## 제 7 장 結論

백범 政治理念의 壓縮的 思想으로서의 民族主義는 實踐을 배제한 관념적 유희로서가 아니라 사상과 행동의 연대적 의미로서 중요성을 지닌다고 하겠다. 白凡是 血統과 歷史의 共有的 實체인 민족에 대한 영구성과 불변성을 전제로하는 民族共同體의 생존 및 발전전략으로써 민족주의를 설정하고 있다.

계급이념을 민족이념과 대칭적 구도하에 두고 정치사회의 統合은 본질적으로 단기성을 지니는 계급보다는 항구적인 본질을 지닌 민족을 토대로 할 때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같은 점에서 그는 민족지상주의의 표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그것이 배타적이고 비합리적인 국가주의적 양태가 아니고 세계의 平和主義的 信條와 맥을 같이 하는 민족의 절대성을 지향하고 있는 것이다.

民族主義와 世界主義를 상호배리적인 관계로 보지 않고 민족주의를 기반으로 세계평화에 접근한다는 相互合一的이고 相互調和的인 關係를 추구하고 있다. 그래서 그는 우리 "民族의 幸福"을 통해서 "人類平和"를 지향하는 주체적인 민족관을 전개시키고 있다.

해방후 최우선적인 민족과제를 완전한 자주독립국가의 수립에 두고 우리 民族의 主體를 확보하기 위해 매진했던 것은 자신의 민족주의 이념의 귀일과정으로서 생각된다. 白凡是 패권주의적 성향의 國家主義를 계급적 유형으로 보고 배척했기 때문에 외세의 침략과 간섭에 대해 主體性과 自主性속에서 민족의 발전을 도모한다는 그의 이념에 따라 단호히 거부하는 노선을 보였다고 하겠다. 그리고 新生國民族主義에서 간과되기 쉬운 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은 그의 理念的 普遍性을 強化해주는 의미를 지닌다.

백범일지에서 백범은 자신의 정치이념을 自由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다고 하여 국민적 다양성을 기초로 한 民主的 制度를 민족의 자아실현을 위한 制度로 보고 이에 반하는 階級獨裁를 통렬히 비판하고 있다.

이미 민족주의이념에서 민족과 계급의 상치성을 지적한 바 있는 白凡是 個人 또는 特定階級에 의해서 전단적으로 행해지는 독재정치를 階級에 의한 지배질서로 단정하고 민족의 "아름다운" 미래건설을 위해서는 반드시 불식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백범의 民主主義論은 自由精神을 土臺로 해서 인간평등으로 연결되고 있는데 자신이 조선조사회에서 몸소 당했던 경험의 반영으로 이는 自由와 平等의 二元性 대신 相互綜合的 사상체계를 구성하는 요인이 되었다.

99) 윤세원, '백범김구의 리더쉽', 민족지성, 1988년 2월호, p. 60.

100) 이 점에 대해 백범은 "가까이 이조시대보다 더라도 흥문관, 사간원, 사헌부 같은 것은 국민중에 현인의 의사를 국정에 반영하는 제도로 멋있는 제도요 과거제도와 암행어사 같은 것도 연구할만한 제도다. 역대의 정치제도를 상고하면 반드시 쓸만한 것도 많으리라 믿는다. 이렇게 남의 나라의 좋은 것을 취하고 내나라의 좋은 것을 골라서 우리나라 독특한 좋은 제도를 만드는 것도 세계의 문운에 보태



白凡에 있어서 자유는 秩序와 法을 규정력으로 한 개념으로 국가적 생활하에서 그 정당성을 인정하고 있다. 자유와 법의 관계에 있어 적절한 절차와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 法은 自由와 外的인 보호적 장치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이다.

법을 성립기초로 한 자유에 의한 民主制度만이 國家와 民族의 합리성을 가져오게 하고 "主義나 階級"을 기초로 하는 제도는 체제의 비합리성을 확대시킬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백범은 또한 민주주의라는 체제도 민족의 主體的 土壤에 따라서 수용이 이루어져야 함을 피력하고 있는데 민주주의의 양대조류인 미국식 민주주의와 소련식민주주의 역시 우리의 歷史的, 文化的 배경에 의해 "좋은 것을 취해야"한다고 하여 民族主義와 民主主義의 조화속에서 자신의 이념을 구성하고 있다.

自由價値는 民族價値를 완성시켜주는 媒介의 役割을 하는 것으로 나라의 발전과 진전을 위한 진정한 민족주의의 수립은 自由의 응집제도인 민주주의로써 가능하다는 것이다.

백범은 民主主義를 가능하게 하는 實踐의 戰略에 思想으로 경제평등론을 제기하고 있다. 經濟平等에 대한 그의 신념은 빈농상민의 빈한한 가정에서의 출생과 조선조사회의 신분제도와 봉건적인 경제질서에 대한 차별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참고문헌

- 김구, 백범일지(교문사, 1980).  
김우태, 한국민족주의 연구(부산대학교대학원, 1984).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편), 독립운동사 제4권:임시정부사(독립유공자사업기금운영위원회, 1973).  
문현상의, 인간과 윤리(대왕사, 1989).  
손세일, '김구선생의 민족주의', 나라사랑, 제21집.  
송건호, 한국현대인물사론(한길사, 1984).  
안병준, '민족주의와 한반도', 국제정치논총 제23집(한국국제정치학회, 1983).  
유병필, 백범의 정치 사상에 관한 연구(중앙대학교대학원, 1988).  
유영준, '白凡民族主義에 관한 小考:그 정치적 재조명', 나라사랑, 제21집.  
윤세원, '白凡의 政治思想에 관한 研究', 정경논집 제17집(중앙대학교정경대학, 1981).  
-----, '白凡金九의 리더쉽', 민족지성, 1988년 2월호.  
-----, '白凡의 정치사상과 統一路線', 백범연구, 제2집, 1986.  
이강훈, 대한민국임시정부사(서문당, 1977).  
이서행, '민주주의', 고법서의, 현대정치이데올로기총론(학문사, 1988).  
이용희, 한국민족주의(서문당, 1977).  
이현희, 대한민국임시정부사연구(동국대학교대학원, 1981).  
-----, 한국근대사와 민중의식(탐구당, 1981).  
장덕환, 현대의 정치학(박영사, 1982).

조선일보, 1948년 7월 22일자.

조일문, '金九의 獨立鬪爭과 獨立思想', 통일문제연구 제1집(건국대학교통일문제연구소, 1976).

진덕규, '金九와 韓獨黨', 월간조선, 1985년 8월호.

-----, '한국민족주의의 이념과 성격', 진덕규의, 한길역사강좌3: 한국현대사와 역사인식(한길사, 1987).

-----, '한국의 保守主義와 進歩主義', 신동아, 1979년 11월호.

-----, 현대민족주의의 이론구조(지식산업사, 1983)

차기벽, '저항적민족주의 문제: 그 대의면', 노재봉(편), 한국민족주의와 국제정치(민음사, 1983).

최영희, '백범의 인간과 사상', 백범김구선생탄진 100주년기념강연집(백범김구선생탄진100주년기념  
축전집행위원회, 1976).

Carl J.Fredrich & Zbigniew K.Brzezinski, Totalitarian Dictatorship and  
autocracy(New York:Frederic A.Preger, 1964).

Durant, The lessons of history(New York:Simmons and Schuster, 1968).

Edward H.Carr, Nationalism and After(New York:St.Martins Press.Inc., 1945).

Hans Kohn, The Idea of Nationalism(New York:The Macmillan Co., 1946).

H.J.Laski, Morden State(London:George Allen & Unwin, 1948).